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발행인 : 이계훈
E-mail: kafva-airforce@naver.com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공군전우회 2024년도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제29대 공군전우회장 및 제10대 공군발전협회장에 이계훈 전 공군참모총장 취임



공군전우회 중앙회는 3월 27일 공군호텔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손성락 공군참모차장, 역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산하/협력단체장과 임원, 중앙회 정회원, 국내 각지부/지회장과 임원, 내빈 및 수상자 가족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국민 봉사 및 지원 활동에 기여한 공군현역 2명에게 보라매상과 상금100만원씩을, 공로상, 자랑스런 공군인상, 자랑스런 장한어머니상 및 공군참모총장의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 김은기 회장의 인사말과 회무보고가 있었으며 박병철 감사의 감사 보고 후, 심의의결 안건으로 지난 2월 21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차기회장 추천안과 3월 6일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3년도 수지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차기 회장(이계훈 전 공군참모총장)선임안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이후 이임 김은기 회장의 이임사, 전우회기 이양, 신임 이계훈 회장(예 대장, 공사 23기)의 취임사에 공군참모차장의 축사와 공군가 제창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마쳤다.

신임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

安 忘戰必危)라고 천하가 아무리 평온해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로워 진다는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우리군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되는 것이기에 군인 출신인 우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서, “전쟁억제와 승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주도함과 아울러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을 다하고, 공군전우회 산하단체와 지부/지회 활성화를 적극유도하여 회원간 화합과 단결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공군발전협회 부설 항공우주력연구원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여 우리 공군인들의 소망인 항공우주력 중심의 국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부 행사는 공군본부에서 준비한 ‘공군정책 소개’ 브리핑을 들은 후 공군군악대의 축하공연, 만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수상자 명단

- 보라매상 : 공군소령 최원진(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군대위 이준범(공군항공안전단), 대구광역시 지부
- 공로상 : 김수영(양평군 지회장), 황명연(중앙회 골프동호회)
- 자랑스런 공군인상 : 오남칠(보라매가족봉사단장)
- 자랑스런 장한어머니상 : 김정애, 백정숙(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
- 공군참모총장 감사패 : 손정문(광주광역시 지부장), 권태정(대구광역시 지부 장학재단 이사장)

2023년도 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전술통제관으로 근무 중인 F-15K 전투임무기 조종사 김선경 소령이 ‘2023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은 2월 21일 공군호텔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3년 최우수 조종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군은 매년 전 비행대대 조종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조종사를 뽑는다. 평가 항목은 비행경력, 실제 작전참가 횟수, 근무 및 수상실적, 비행·지상안전, 체력 등이다. 김 소령은 총 2000시간의 비행

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다. 지난해만 240시간을 비행하며 영공을 수호했다. 김 소령은 이날 김신장군기념사업회에서 수여하는 ‘김신상’도 최초로 받았다.

김신상은 6대 공군참모총장이었던 김신 장군의 삶과 뜻을 기리고자 제정됐으며, 공군인들의 자부심과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최우수 조종사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분야별 최우수 조종사 3명에게는 국방부장관 표창이 주어졌다. 전투임무 11전비 F-15K 조종사 김주호 소령, 비행교육 1전투비행단 T-50 조종사 이상범 소령, 기동·통제·



급유 및 기타 11전비 F-15K 조종사 정태영 소령이 각 분야 주인공이 됐다.

이 밖에 기종별 우수 조종사 23명과 우수 조종군무원 2명에게는 참모총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계훈 회장 취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저를 29대 공군 전우회장과 10대 발전 협회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인준해 주신 김두만 총장님을 비롯한 정책 자문 위원님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큰 영예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해야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군전우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원로 선배님들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노력과 성원으로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으며 명실공히 이제 모든 공군 예비역의 대표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발전협회도 안보학술회의 개최, 연구논문집 발간 및 용역과제 연구등을 통해 국방 안보정책 대안 및 공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김은기 회장님은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인 복합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군 전우회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대·내외적인 활발한 활동으로 회원 확대와 안정적 재정확보 및 제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이에 이임하시는 김은기 회장님의 노고

와 업적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올해로 창군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군은 첨단 공군으로 성장하였으며, 우리가 만든 최신 전투기로 우리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공군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공군을 거쳐 간 모든 공군인과 현역 공군장병들이 쌓아온 피와 땀의 결실이기에 우리 공군인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핵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의 분쟁등으로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물론,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마하는 우리 국민의 안보 불감증도 문제입니다.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고 천하가 아무리 평온해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로워 진다는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군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되는 것이기에 군인 출신인 우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집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평화는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필승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가쳐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압도적인 힘과 평화체제를 튼튼히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속을 이끌어내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쟁 억제와 전쟁 승리의 핵심인 우리 공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를 주도함과 아울러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군 전우회와 발전협회는 대내외의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전쟁에 대비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국가와 공군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네트 워크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추억은 기억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군대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인상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회원님들은 물론, 전우회 산하단체와 각 지부/지회와의 소통,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우리의 추억을 서로 나누면서 친목 도모는 물론 삶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고 취업 알선등 삶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소

통의 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우회 산하 단체와 각 지부/지회와 협력하여 법률, 의료 서비스 협력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홍보하여 무언가 보탬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조직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 사업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공 우주력 연구원의 연구기능도 활성화 하여 공군인들의 소망인 항공 우주력 중심의 국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공군 예비역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공군 전우회와 발전협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님들의 친목 도모와 복지증진은 물론 희망을 주고 보탬을 주며 국가와 공군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은 우리 회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를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김은기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회원여러분 모두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대한민국공군전우회/(사)공군발전협회 회장 이계훈

2024년도 정책자문회의

본회 중앙회는 역대 참모총장으로 구성된 정책자문회의를 2월 21일 11:00 시 공군호텔에서자문위원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은기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회무보고와 차기회장추천 심의가 있었다.

차기 전우회장추천건에 대해서는 회칙에 의거 이광학 호선위원장 주관하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제31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계훈(예 대장,



공사23기)장군을 차기(제29대)전우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공군발전협회 신년 정책간담회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 연구원은 2월 6일 공군항공 안전단에서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현역과, 공군 예비역 관계자 및 항공우주력연구원 연구위원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신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신년 간담회는 김은기 공군발전협회장 환영 인사말,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의 공군 핵심현안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있었다. 이어 윤우 항공우주력연구원의 공군발전협회



주요활동계획 소개와 제12회(2024년도) 안보학술회의 주제설정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공군 ROTC장교회 회장단 내방

본회 산하단체인 공군 ROTC장교회 김석찬 회장 등 2명이 2월 14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은기 회장 및 임직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전우회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석찬 회장은 공군ROTC장교회의 일반현황 및 주요 활동상을 간략히 보고하고, 중앙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다.

본회 김 회장은 “공군ROTC장교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치하”하며 “ROTC 장교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했다.

현재 공군ROTC장교회 회원은 약 5,0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특히 주요행사의 일환으로 공군ROTC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연례 행사로 실시하고 있다.//

주한일본 공군무관 내방

주한일본 공군무관인 효도 코타로 대령과 나가야시 다케시 공군대령이 3월 13일 인사차 본회 김은기 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효도 대령은 한국에서 약 3년간 근무를 마치고 3월 25일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며 후임으로 나가야시 다케시 대령이 3월 11일 부임하여 임무를 맡게 된다.

김은기 회장은 이임하게 되는 효도 대령에게 “그동안 한일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



로를 치하”하며 “후임 다케시 대령에게도 한·일간, 특히 한국공군전우회와 일본 츠바사회간의 교류협력을위한 교량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

2024년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이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

한미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야외기동훈련(FTX)을 전개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연습은 최근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전개됐다.

한미는 연합연습 기간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FTX를 확대 시행해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연합연습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등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했다.//

군 정찰위성 2호 발사도 성공

군 정찰위성 2호기가 4월 8일(한국시공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8일 오전 8시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길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호기는 방사청이 사업을 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업체가 협력해 개발했다. 특히 고성능 영상 레



이다인 ‘합성개구레이다(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 앞으로 2호기는 ADD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 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되는 운용 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KF-21 보라매, 첫 공중급유 비행시험 성공

방위사업청(방사청)은 3월19일 “KF-21 시제 5호기가 공군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해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은 3월 8일 착수해 공중급유기 급유장치와 KF-21 급유장치 간 조종 특성을 사전 점검했다.

이어 19일 남해 상공에서 급유기의 급유막대를 KF-21 공중급유 연결부에 연결하고, 급유기 내 보유 연료를 KF-21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비행시험을 전개했다.



비행시험에는 공군이 운용하는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가 투입됐다.//

KF-21 전투기 첫 양산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최초 양산된다.방위사업청(방사청)은 3월 22일 국방부에서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한국형 전투기(KF-21) 최초 양산계획(안) △F-15K 성능개량 구매계획(안)이다.

KF-21 전투기 양산사업은 장기운용 전투기 도태에 따른 대체전력으로서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한국형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8년까지 약 7조9200억 원이 투입된다.

F-15K 성능개량사업은 공군에서 운용하는 F-15K 전투기의 임무 능력과 생존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레이더 등 핵심 구성품을 성능개량하는 것이다. 방추위에서는 국외구매(FMS) 방식으로 추진하는 안이 심의됐다. 성능개량이 되면 신속·정확한 표적 식별 및 타격 능력 향상, 안정적 운용여건이 마련돼 장거리 임무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은 오는 203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약 3조8900억 원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전투기 20대의 양산계약을 우선 올해 진행하고, 나머지 20대는 내년에 한다”며 “중요한 것은 40대가 계획대로 승인돼 당초 전력과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착수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가 양산사업에 들어간다.

양산된 MUAV는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월 “24·25일 부산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합동참모본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MUAV 양산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MUAV는 중심지역 표적 정보 수집 및 정



찰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원거리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전송하는 무인 항공기다.//

대구에 ‘국립구국운동기념관’ 세운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위기마다 구국의 정신을 발휘했던 대구지역에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이 세워진다.

정부는 3월4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계획을 소개했다.

대구는 국권회복운동의 한 획을 그은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며,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해 대한민국의 자유

를 지켜낸 곳이다. 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인 ‘대구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아우르는 기념시설이 없어 줄곧 지적이 제기됐다.

기념관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대구 중구 대신동 일대에 건립된다. 총 사업비는 2530억 원으로 추산되며 기념관, 기념공원, 지하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 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국가가 책임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데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부는 2월13일 “5개 법률을 개정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생계 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은 2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이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 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빈소·상주 용품, 장의차량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면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등에 신청하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가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부산에 보훈 요양병원 개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요양병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3월 15일 문을 열었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이날 부산 사상구 부산요양병원 1층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정에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하유성 보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관 기관장, 보훈 단체장과 보훈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요양병원은 서울요양병원과 광주요양병원에 이어 3번째로 개원하는 보훈 요양병원이다. 앞으로 보훈 가족을 비롯한 부



산·울산·경남 지역주민에게 최적화된 요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452억 원이 투입된 부산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180병상(6인실)을 갖췄다.//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공군은 2월 1일 공군 호텔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4년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공군은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2001년부터 정책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언론과 학계, 정부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자문위원들은 정책, 기획관리, 인사, 정보작전, 군수, 정보화, 정훈 총 7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새롭게 위촉된 16명의 자문위원을 비롯해 60여 명의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2023 공군을 빛낸 인물·단체 시상식

공군은 1월 29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3년 공군을 빛낸 인물·단체 시상식’을 거행했다.

공군은 7개 부문에서 개인 3명과 단체 4개 팀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는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조직 운영 발전 부문에서는 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 무인항공기체계과가 선정됐다.

신지식·정보화 부문은 공군지능정보체계관리단 소속 김현철 중령이 차지했고, 15특수임무비행단(15비)은 희생·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이 밖에 체육·문화 부문에는 11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소속 김정민 중사가, 협력



부문에서는 공군-서울시 간 미래 신기술 상호협력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이상용 디지털 수석, 특별 부문에는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천궁-II 전력화 지원을 통해 양국 군사협력에 기여한 UAE 군사협력팀이 선정됐다.//

53기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

공군교육사령부(교육사)는 2월 21일 최준송(소장) 사령관 주관으로 ‘제53기 항공과학고등학교(항공고)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부사관들은 지난 2021년 3월 항공고에 입학해 항공통제·항공전자·정보통신·항공기체 등 4개 전공 중 1개를 선택해 학업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또 임관 전 6주간 강도 높은 기본 군사훈련을 수행하며 국가·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공군 부사관으로 거듭났다.



한편 이날 공군전우회 보라매상은 신임 박영석 하사에게 김진홍 공군전우회 부회장(항공고총동문회장)이 전수했다.//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코프 노스’ 훈련 참가

공군은 2월 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4년 코프 노스(Cope North)’에 참가했다.

우리 공군이 코프 노스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7번째다. 특히 코프 노스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이 함께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포함됐다.

올해 코프 노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총 6개국이 함께했다. F-2·F-15C·F-16C 등 전투기, C-130·CN-235 등 수송기를 포함한 다국적 항공기 80여 대와 병력 3000여 명이 하



늘과 땅에서 전술·전기를 갈고닦았다. 우리 공군은 5공중기동비행단(5비)과 15특수임무비행단(15비) CN-235 수송기 2대와 조종사, 정비사, 의무요원 등 30여 명의 병력으로 훈련단을 구성해 동참했다.//

공군사관학교 제72기 졸업 및 임관식

공군사관학교 제72기 졸업 및 임관식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을 이끌 새내기 보라매들이 탄생했다. 72기 공군사관학교(공사) 생도 173명은 3월 6일 ‘졸업 및 임관식’을 통해 정예 공군 장교로 거듭났다.

졸업 및 임관식 행사에는 졸업생 가족과 친지, 내빈을 포함해 총 1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친지들은 국방TV와 국방뉴스 유튜브에서 생중계된 영상으로 행사를 지켜봤다.

신임 소위들은 166명의 사관생도와 외



국군(베트남·몽골·아제르바이잔·이라크·태국·페루·필리핀) 수탁생도 7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입학해 4년간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생활교육, 학위교육을 이수해 군사학과와 함께 전공별로 각각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

2023년도 안전우수부대 시상식

공군은 2월 15일 3훈련비행단(3훈비)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3년 안전우수부대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군은 장병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부대 내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매년 안전우수부대를 선발하고 있다.

안전우수부대는 전 비행단·전대·대대와 소속 장병들을 대상으로 비행안전·지상안전·안전업무 세 분야에서 1년간 공적을 종합해 총 10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 평가한다.

지난해 안전우수부대로는 3훈비, 51항공통제비행전대(51전대), 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가 선정돼 참모총장 부대표



창의 영예를 안았다. 3훈비 217비행교육대대 강성록 소령 등 9명은 투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공군 안전관리 역량 발전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참모총장 개인 표창을 받았다.//

공군, 한미연합 JTAC 훈련

한미 공군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들이 근접항공지원작전(CAS) 절차를 숙달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 한미 공군은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서 연합 JTAC 훈련을 펼쳤다.

미 공군51전투비행단이 주관하는 CAS 훈련과 연계한 훈련에는 양국 JTAC 10여 명과 미 F-16 전투기, A-10 공격기 등이 참가했다.

JTAC는 시시각각 바뀌는 전장에서 아군



과 동맹군의 항공기 무장 투하를 현장에서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글로벌 센티넬’ 참가

공군이 미 우주사령부가 주관하는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 ‘글로벌 센티넬(Global Sentinel)’에 참가했다. 공군은 연합연습을 통해 미국·영국 등 우주 선진국의 노하우를 얻고, 국제 공조 대응능력을 길러 우주 안보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공군은 2월 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개최된 글로벌 센티넬에 참가했다. 2014년 시작된 글로벌 센티넬에 우리 공군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6회째 참가했다.

올해 연합연습에는 28개국의 우주 분야

전문가 25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 측은 공군본부 우주센터,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가 참가했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민간 우주분야 전문기관도 동참했다. 참가국들은 인공위성 충돌, 우주물체 추락 등 30여 개 가상 상황에 대한 우주영역인식(SDA) 분야 상황조치 절차를 연습했다.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나눠 다국적 연합우주작전팀을 운영하며, 팀별 협업을 통해 우주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절차를 숙달했다.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한 팀을 이뤘다.//